



포천시 문화예술단체장 ⑧ 솔모루문화회장 장현곤

“시는 형평성 맞게 예산지원해야”

“2005년 3월 뜻 있는 문우들과 함께 선비의 고장 포천의 전통적 글의 맥을 잇고 포천의 문예발전과 문화인구의 자변확대를 꾀하며, 문예강의 및 문학지 발간, 백일장의 개최 등을 통하여 회원의 자질향상과 우수한 문학인의 발굴로 포천지역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창립했습니다.”

솔모루문화회 장현곤(사진) 회장의 창립목적에 대한 설명이다. 현재 50여명의 회원이 활동중인 솔모루문화회는 소홀함에 거주하는 문화동호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창립했다.

창립이후 주요 활동은 시낭송회를 비롯해 대전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이며 시인인 박정근 교수와 문학평론가이며 대전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인 김성렬 교수 등 초청해 문학특강을 개최하기도 했다.

또 춘천 김유정 문학관을 방문하는 문학기행을 실시했으며 동호인들의 작품을 모아 ‘솔모루문학’ 창간호를 2006년 2월에 발간했다.

글을 쓰기 좋아하는 글 잘 쓰는 법을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솔모루문화회의 장점은 카페의 활성화에 있다. 다음카페를 활용해 다양한 작품을 서로가 공유하고 서로 도

움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포천문화원에서 실시하는 백일장대회에서 입상한 시민들을 솔모루문화회 회원으로 영입해 다양한 글쓰기 체험은 함께 문학회 활동에 나서고 있다.

솔모루문화회 현안사항에 대해 장 회장은 “예산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그동안에는 포천시 예산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꼭 예산을 신청해서 문화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포천시에 바라는 사항에 대해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포천시민들에게 장 회장은 경기가 매우 어려워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서 저들러 살지 말고 문화를 통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그 어려움을 글로 표현함으로써 정신적으로 풍부해지고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솔모루문화회 활동을 권한다고 밝혔다.

포천신문에 바라는 바는 “포천신문이 지역신문으로서 역할을 하는 여론수렴 매체로서 포천시와 협력관계 유지는 물론 견제의 기능을 적당하게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활동계획에 대해 장 회장은 “김유정 문학관에 다녀오면서 포천에도 이와 같은 문학관이

나 기념관이 있을 법도 한데 왜 없는지 그 이유가 궁금했다”며 “포천에도 이혜조 기념관 건립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포천지역에 편중돼 있는 각종 문화시설은 물론이거니와 각종 대회를 이곳 소홀음에도 유치하여 5만에 가까운 소홀음민들의 축제와 문화행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특히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문화행사와 축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차원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

장 회장은 “문학은 자기의 삶과 정신에 뿌리를 박고 자라난 나무와도 같다. 글쓰기의 생활이 배어있지 않은 글은 살아있는 작품이 아니다. 대지로 잘 알려진 소설가 필자는 어머니라는 소설을 통해서 남들이 보기에겐 평범하기만 한 자신의 어머니를 생활력과 예외와 진정한 아름다움을 가진 존재로 새롭게 창조해 낸 것이다.

또한 러시아의 대문호 푸시킨은 고독하고 불우한 유배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러시아의 역사적 운명과 민족의 생활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있는 글을 쓸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솔모루문화회 포천문화 발전의 중심에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화와 생활 및 체험과의 깊은 연관성으로 인하여 솔모루 문화회 회원들의 문화활동은 뜻뜻하고 싱그러운 향내가 나는 조그마한 소나무들의 울적임과도 같다”며 “경륜의 나이가 더해 갈수록 늘푸른 커다란 소나무들로 자라서 거대하고 울창한 소나무 군락을 형성하여 멀리까지 솔향기를 풍기는 문화회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솔우초등학교, 동남중학교, 의정부고등학교, 국민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수필집으로 ‘대화 속의 깎두기’가 있으며 2002년9월 교보초회 베스트셀러 작가 초청 저자사인회를 개최했으며 현재 동남고등학교 운영위원, 하나로 베이커리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韓國의 선비정신 · 59

공을 세운 뒤에는 미련없이 물러난 객재우

객재우(郭再祐 1552~1617)의 본관은 현풍(玄風)이고, 자는 계수(季綬), 호는 망우당(望憂堂)이다. 의주 목사 곡월(郭越)의 아들이고, 남평 조식(曹植)의 문인이다.

문무에 모두 뛰어났으며 선조 18년(1585)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했으나 글귀 중에 왕의 뜻을 거스리는 구절이 있다는 이유로 때문에 파방되어 합격이 취소된 후로 과거 공부를 버리고 죽자장해(竹杖芒鞋)로 강산을 유람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마을에서 의병을 모으고 사재를 털어 의병 70여명의 군량을 부담하였다. 객재우는 이 70여명을 이끌고 정진(淸津)과 함안(咸安)에서 왜병을 기습하여 적의 수급 50여개를 가져오는 전과를 올렸다.

그 뒤부터 객재우의 의병은 점점 불어났으며, 싸움이 있을 때마다 그는 붉은 전포를 입고 항상 앞장 서서 싸워 승리를 거두었으므로 서해(西海)에 ‘천강홍의장군(天降紅衣將軍)’으로 널리 알려졌다.

왜병의 두 번째 침략인 정유재란 때의 일이다. 이 또한 고을들이 왜병의 총칼 앞에 다 무너졌는데 화양산성(火田山城)을 지키고 있던 경상좌도 병마절도사 객재우만이 고집스럽게 성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본 체찰사 이원익(李元翼)이 객재우에게 성을 포기할 것을 종용했다. 끝까지 버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객재우는 다음과 같



리효중 포천한시사 대표

이 말했다.

“옛적 전국시대에 제(齊)나라는 70여개 성(城)·도시(邑) 모두 함락되었지만 즉독(即墨)·제나라의 도시(邑)는 온전했고, 또한 당나라 군사 100만이 안시성을 공격했지만 안시성은 무너지지 않고 버티었습니다. 다른 군(郡)들이 힘없이 무너진다고 해서 우리 성을 포기하란 말입니까?”

그는 화양산성을 끝내 지켰다. 그 해 그는 계보 상을 당하여 고향인 울진으로 내려가 3년살을 마친 뒤에 두문불출하고 자제들과 함께 패랑이를 만들어 팔면서 그것으로 생계를 꾸렸다.

선조 33년(1600)에 조정으로부터 진주 목사 겸 경상도 조방장에 임명되었으나 그는 영창대군 의 처리에 강력히 항의하는 글을 올린 뒤, 대간 홍여순(洪汝淳)의 탄핵을 받고 영암으로 유배되었다. 그 뒤에 함경도 관찰사, 한성부 좌윤 등의 벼슬을 받고 자신의 경륜을 한번 펴보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워낙 혼탁한 조정에 실

망하였다. 그리고 다시 은둔생활로 들어가 일체의 화식(火食)을 먹지 않고 오직 술일만 먹으면서 지냈다. 다시 벼슬길에 나가야 한다는 권유를 받으면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

“고양이를 기르는 것은 쥐를 잡기 위함인데, 왜곡이 물러간 지금 내가 할 일이 도무지 무엇인가?”

선도(仙道)에 심취하여 비슬산(琵琶山)에 들어가 도가의 방술(方術)을 연구했다. 얼마 후엔 취산(鷲山)의 창암(蒼巖)에 들어가 ‘망우당(望憂堂)’이란 현판을 걸고 신선처럼 살았다고 전한다. 오봉(五峰) 이호민(李好民)이 객재우에게 다음과 같은 시를 보냈다고 한다.

내가 들으니
홍의장군은
왜놈을 쫓기를
노루 쫓듯 했다지요
그대에게 말하노니
끝내 나라 위해 진력하시고
저 유명한 객분양처럼
부귀도 누리소서

문도홍의장(聞道紅衣將) 축약어축장(逐獲如逐雉) 수언종류력(爲言終戮力) 위사객분양(須以客分陽)

*註) 객분양(郭分陽): 당나라 객자의(郭子儀). 나라에 끼친 공로가 커서 분양왕(分陽王)에 봉해졌으므로 객분양으로 불림. 공(功)과 부(富)와 귀(貴)를 한몸에 지닌 사람의 대명사처럼 후세에 널리 인용되는 사람임.



<지그펠드 폴리스(Ziegfeld Follies)>의 미녀들과 패니 브라이스(Fanny Brice)

예쁜 얼굴과 꽃미남이면 가요계나 연예계에서 무조건 통하던 시절이 있었다. 물론 지금도 그 공식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영화나 TV에서 종종 美와 전혀 상관없이 개성 있는 배우들이 주인공을 맡기도 한다. 그렇지만 아름다움에 대한 선호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절대 변함이 없는 것 같다. 미녀(미남)→가수→배우(연예인) 라는 공식이 통용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간혹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한 외모를 컨셉으로 연예계에 도전장을 내밀어 성공하기도 하는데 결국 외모가 뛰어나지 못하면 대중을 사로잡을 만한 개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레뷰(Revue)의 스타 패니 브라이스(Fanny Brice, 1891~1951)는 바로 독특한 개성을 지닌 그런 연예인이었다. 결코 아름답지 않은 외모에 사투리를 구사하는 패니는 비록 못생긴 외모의 소유자였지만 당대 미국 최고의 보드빌 코미디언으로, 최고로, 영화배우로 그리고 중년에는 라디오 방송의 연예인으로 활동하며 적어도 미국에서는 전설적인 엔터테이너로 기억되고 있다.

로렌츠 지그펠드(Florenz Ziegfeld)였다. 191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인기 있었던 <지그펠드 폴리스(Ziegfeld Follies)>라는 레뷰를 창시한 그는 오늘날의 뮤지컬의 창시자이다. 그의 대표작 <쇼보트(Show Boat, 1927)>를 제작한 프로듀서로서도 잘 알려져 있다. 화려한 의상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들과 호화로운 세트 그리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주인공들-특별히 줄거리가 없는 레뷰임에도 불구하고 지그펠드 폴리스는 뉴욕의 명물로 자리잡았다. 일명 ‘지그펠드 걸스(Ziegfeld Girls)’라는 미녀들을 화려한 계단과 무대 곳곳에 배치하여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아름다운 노래들과 스펙타클한 무대연출은 관객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그 속에서 패니 브라이스는 더욱 빛나는 스타였다. 추(醜)한 매력(?)이랄까---개성이 아름답지만 한 수줍은 여자를 사이에서 패니는 코믹한 연기과 노래로 관객들을 사로잡았고 브로드웨이건 건재했던 1929년까지, 다시 말하면 미국의 주식시장이 붕괴되며 경제공황이 도래하기 전까지 레뷰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경제공황 이후

브로드웨이 극장들 대부분이 문을 닫게 되면서 많은 배우들이 영화나 텔레비전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 40대 후반에 들어선 패니 브라이스 역시 라디오에서 활동하면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버릇없는 소녀(일명: Baby Snooks)’ 라는 역할로 오랫동안 대중적인 스타의 자리에 군림했다.

패니의 특징은 사투리인 이디시語(Yiddish, 유럽과 미국 유대인 사이에서 주로 쓰는 방언)를 구사하는데 있었다. 보드빌 코미디언으로서 재능은 있었지만 못생긴 외모에 평범한 말투 그리고 춤도 잘 추지 못하는 패니에게 ‘화이트 크리스마스(White Christmas)’의 작곡가 어빙 버린(Irving Berlin)은 빠른 말투에 사투리 구사를 제안했고 패니의 분위기에 맞는 노래도 만들어 주었다. 이러한 패니의 컨셉은 주창하여 지그펠드 폴리스에 스카웃되었으며 중산층의 호화로운 걸치레를 패러디한 코미디이고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다양하고도 코믹한 춤과 노래 그리고 만담으로 지그펠드 걸 중에서도 최고의 스타로 자리 잡았던 것이다. 패니는 다양한 말투를 익히기 위해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만났으며

다국적 사람들을 친구로 삼았다. 많은 연예계 스타들이 그렇듯이 패니 브라이스도 빈민가에서 태어나 극도로 어려운 생활을 했는데 어머니의 배려로 보드빌 공연은 빠짐없이 관람했으며 이것이 후일 패니의 성공에 커다란 단초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외모지상주의가 더욱 거세지는 현실 속에서 최고의 미녀들 가운데 굳이 지그펠드 폴리스의 성공담은 연예인이 되고픈 많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표본이 아닐 수 없다. 패니 브라이스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화녀 걸(Funny Girl, 1968)>과 플로렌츠 지그펠드의 일대기 영화 <위대한 지그펠드(The Great Ziegfeld, 1936)>가 국내에도 DVD로 출시되어 있는데 아카데미 작품상과 주연상 등을 수상한 역작들로 지그펠드 폴리스의 레뷰 무대와 패니 브라이스의 재능을 엿볼 수 있어 흥미롭다.



윤우영 (대전대 교수, 연출가)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93)

기념 식수와 수목장(樹木葬)

‘하루의 행복을 느끼려면 이발을 하고 샤워의 행복을 느끼려면 승마를 하고 일주일의 행복을 느끼려면 여행을 하고 40년의 행복을 느끼려면 농사를 짓고 1시간의 행복을 느끼려면 결혼을 하고 평생의 행복을 느끼려면 참된 벗을 사귀고 영원한 행복을 물려 주려거든 예술품을 남기고 그 곁에 나무를 심어라.’ 라는 서양 격언이 있다.

나는 이 숙답이 꼭 교훈을 주는 격조 높은 격언이라고 믿기에 좀 난해한 부분이 있으나 조금은 고개가 끄덕여지는 데가 있다는 생각이다.

다름이 아닌 맨 끝 영원한 행복을 물려주려면 예술품을 남기고 그 곁에 나무를 심으라는 대목이다.

마전3리에 가면 조선조 유순정승의 기념식이 있다. 유순(柳順, 1441~1517)은 조선 연산군조 때 상신(相臣)으로 자는 희명(希明)이며 호는 노도(老圃) 당문외유씨로 세종8년 등과 연산군조 때 영의정, 중종반정 시 정국공신, 문성부원군(文成府院君)으로 봉했으며 만년에는 시부로써 예술적 여생을 마쳤는데 시호는 문희(文희)이다.

포천 자작동에서 살았으며 자작리에서 태어났는데 만년에는

수원산 아래 청량포(淸涼浦)마전동에 살았으며 연못을 파고 세 그루의 괴목을 기념식수를 했다. (묘:양주 무둔산 팔아미) 이밖에는 금현리의 330년된 향나무는 조선인조조 이기남 선비의 생가(生居)기념식수이고 마산리의 330년 수령의 돌배나무는 회양부사를 지낸 이시성 선비의 생가(生居)기념식수이며 여흥리 상촌대 마담의 50년된 은행나무는 의정부시장을 지낸 오건식옹의 행정고시 합격 후, 안성군수로 부임할 때 고향을 떠나며 안성산(安城産)은행나무 목목을 심어 지금도 은행이 많이 열려 당시를 회상케 한다.

가재리에는 독립운동가 최면식 지사가 함경도에서 독립운동 당시 주머니에 넣고 온‘참종유(刺種栗)’밤나무가 심어져 있어 60년 전 독립지사의 일을 되새기게 한다. 독립기념관에 가면 포천 가재리 면양 최익현선생 생가터에서 캐어다 이식(移植)한 잣나무가 자라고 있어 독립지사의 우국충정을 회상케 한다. 각 기관장들의 기념 식수는 많다. 그런데 그 기념 식수가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잘 자라고 있는지는 의심의 여지가 많다.

요즈음 수목장(樹木葬)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그러나 수목장을 한다고 잘 자라고 있는 나무 밑에 돌로 표식을 세우거나 하얀 은 통 산을 묘지화 하여 공동묘지를 만드는 일은 삼감일이 아닐 수 없다. 산에다 기념식수를 하고 화장한 유골을 잘 썬는 나무상자에 담아 기념 식수 곁에 묻으면 수목장은 끝나는 게 아닌 단? 잊을까 걱정이 되므로 나무 팻말 하나 꽂으시면 될 일 아닌 단?

인터뷰 제3대 예총회장 이희용 당선자

‘정체성 확보된 예술활동 강화’

“타당하고 공평한 예산지원 위해 노력하겠다”



제3대 포천예총 회장으로 이희용(42·사진) 연극협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3월10일 개최된 포천예총 회장 선거에서 이 당선자는 25표중 15표를 얻어 10표를 얻는데 그친 이병석(미협 회장)후보를 물리치고 당선자의 영예를 안았다. 이 당선자는 앞으로 4년동안 포천예총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다음은 이희용 회장에 포천예총 회장 당선자와의 일문일답이다.

▶당선소감은? 젊은 모두가 선산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미흡하지만 뒷산의 들꽃처럼 살면서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해온 꿈을 이루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데 이번 당선으로 그중 일부를 이루는 것 같아 가슴 한쪽에 담담했던 응어리가 가신 듯한 마음입니다.

▶1·2대 예총이 해결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1·2대 예총은 지역 문화예술의 정체성을 찾는데 소홀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예술가들에 대한 후원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 있는 예산의 지원과 행정적 뒷받침에 대한 노력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1·2대 예총의 문제점을 해결책? 관계된 많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실무에서 지금의 실정을 알고 동의를 구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 노력하겠으며 그동안 차단되었던 회원들 간의 긴밀한 대화를 통하여 유대를 강화할 것이며 회원 스스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효율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도출된 문제들을 하나씩 정리해서 관련된 부서나 언론 등을 통하여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지역예술가들에 대한 차우를 개선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3대 예총회장의 최대 공약사항은? 정체성이 확보된 예술활동의 강화와 객관적 자료를 통한 외부초청비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역예술 활동에 대한 타당하고 공평한 예산지원을 확보하는 것과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 자존심 있는 관객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지역예술가의 활동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선결된 문제이고,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있는데 포천에서 활동하면서 충분한 수준을 갖추고 있는 국

것입니다. ▶포천시와 예총과의 관계는? 예술문화에 대한 전문가 집단인 예총과 지방행정기관인 포천시는 다른 지역과 비교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여 포천의 예술문화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진솔한 대화를 통한 긴밀한 협력과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게 될 것입니다.

▶포천반월빛마을과 예총과의 관계는? 정체성 보장과 타당성 있는 공연과 전시를 위해서는 상호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초청하는 반월빛마을 공연과 전시 중에서 지역예술작품이 배제된 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화가 필요하며 일희성의 초청공연 및 전시는 예술문화 사대주의에 빠질 수 있으므로 포천시민의 자격으로 포천의 예술문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지역예술가들의 활동기회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는 측면에서 상호 노력하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편 타당한 예산분배를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객 확보와 공연전시의 관려해서도 소외된 곳을 찾아가는 공연 및 전시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시설운영에 대한 협조차원의 문제도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포천 예술발전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신뢰와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포천시와 시민들은 지역예술가에 창작 수준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하고 예술가들은 각고의 노력으로 그 신뢰에 부합하여야 하며 이렇게 신뢰가 회복될 때 고향 살 사주기 운동과 같이 지역예술의 존재가치를 알게 되고 포천을 사랑하게 되는 많은 시민들은 가슴 벅찬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술발전을 위해 포천시에 바라는 사항은? 지역예술가의 활동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선결된 문제이고,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있는데 포천에서 활동하면서 충분한 수준을 갖추고 있는 국

악, 무용, 연극 등 지역예술가를 중심으로 예술단을 운영했으면 하는 바램이며 우리의 보배를 멀리하고 다른 지역을 배반하는 오류를 지양하고 여러 때를 때일수록 시민의 한사람이면서 지역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포용과 아량을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예술발전을 위해 포천시민에게 바라는 사항은? 내 식구를 사랑하듯이 포천을 사랑하듯이 포천의 예술에 적극적으로 충분한 사랑을 주셔서 어디에 내놓아도 꿀리지 않는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포천 시민이 만든 예술작품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술발전을 위해 포천신문에 바라는 사항은? 포천의 인문을 대표하는 포천신문은 그동안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많은 도움을 주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예술인들의 활동을 담은 많은 기사를 보도하여 시민들의 거리를 좁히는데 촉매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술발전을 위해 예총 회원들에게 바라는 사항은? 그동안 단합된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많은 것을 잃었고 가슴이 아픈 때도 많이 있었으나 그러나 이제 우리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포천예술의 자존심을 확보하는데 정진해 나가야 합니다.

▶기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동안 형식적으로 지원해온 무형문화재에 대한 예우와 전수문제, 포천 명현을 소재로 한 창작공연문제, 지역 무용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와 지원확충문제, 민인들의 활동 영역 확대문제, 전시작품의 내실 있는 운영문제, 국악과 경기민요의 활성화와 문화예술봉사단의 활성화 등 저는 예총 회장으로서 저의 심정의 따뜻한 마음이 존재하는 한 절거운 마음으로 포천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서헌신 봉사할 것을 다짐합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초대 漢詩 傳統民俗日有感(전통민속일유감)



유봉현 (포천한시사 강사)

時惟細柳舒舒辰(시유세유시서진) 紙上詩筵募業賓(지상시연모업빈) 때가오면 버드나무도 잎이 피는데 축제를 여니 많은 시인이 참여하네.

篤行信言伸道義(독행신언신도의) 獎忠勸孝闡彝倫(장충권효천이륜) 성실한 언행은 도의심을 펴게되고 충과 효는 윤리를 뚜렷하게 함이네.

文章講究朝哺哺(문장강구조보부) 學識研修日月新(학식연수일월신) 아침마다 배우고 익혀서 문장을 밝게하고 학문을 연구하니 날마다 새로워지네.

洙泗洛陽垂示範(수사락양치시범) 崇賢慕聖教施陳(숭현모성교시첸) 공맹의 가르침은 불멸의 진리인데 성현의 가르침 따르리다.